

노들

제 68 호

h

노들장애인야간학교 Nodl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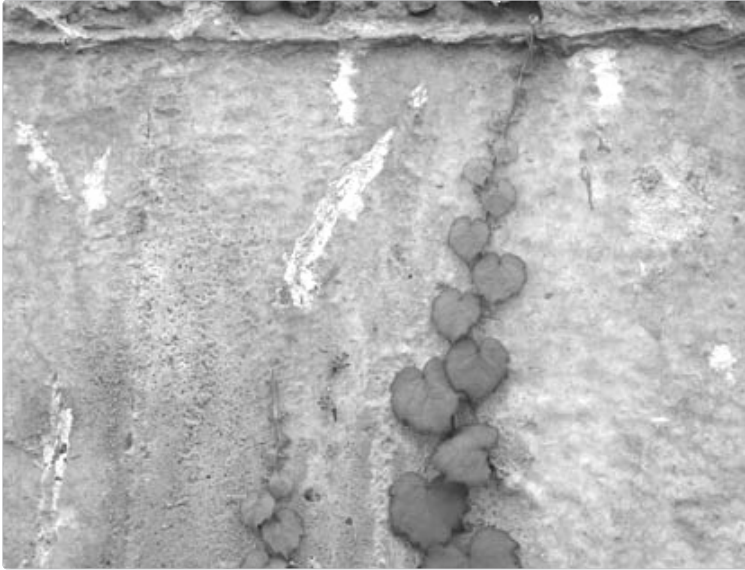
바람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 연락처 02)446-9101(늦은 6시~10시) • 발행인 박경석 • 편집인 정상욱 •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odl.or.kr> • E-mail nodl@paran.com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노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몇몇은 앞서나가기도 하고, 몇몇은 쉬어가기도 하면서, 어떤이는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다른이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평등한 노란들판을 꿈꾸는 우리 모두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담쟁이들...

편집장 우욱

이른 새벽, 길고긴 교사회의 뒤풀이를 털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느 부잣집 담장을 타고 넘는 녀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담쟁이들.....

겨울내 보이지 않던 녀석들이, 어느새 따뜻한 봄임을 알리듯, 벌써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커먼 벽에 푸름을 칠하려는 듯, 차가운 벽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듯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높고도 넓은 벽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느린 속도지만 그렇게 조금씩 담쟁이들은 벽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자본의 논리와 시퍼런 경쟁의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은 보수적인 편견과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침묵하고 묵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지만 조금씩 치열하게 넘고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많은 이들과 전진하고 있습니다. 노들야학도 함께 그 벽을 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진실의 힘을 믿기에,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노들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의 벽을, 억압의 벽을, 자본의 벽을, 경쟁의 벽을, 착취의 벽을 넘고야 말 것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 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일 하나는 담쟁이 일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도종환)

노들야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학기를 맞아 야학을 잠시 떠나는 이들과 새롭게 또는 또다시 야학을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집행부들은 잠시 물러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밝힌 신임 집행부들도 구성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생명이 충만한 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요즘 들어, '야학을 왜 하세요?' 라는 질문에 멍칫 대답을 못하곤 합니다. 딱히 이유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처음 올라올 때의 마음을 잊었나하는 자책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야학이 내 생활의 일부로, 내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듯이, 나는 '그냥' 야학을 합니다. 내 삶의 일부이기에. 그냥 노들야학을 합니다. 내 삶의 일부로서 받아드리며, 내 생활로 노들을 받아 드립시다.

이번호에서는 노들 최대의 버라이어티 쇼! 노들인의 밤 현장모습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얼굴과 아쉬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들바람을 만나주세요.

제 68호 2007·2

야화현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내 교육관 3층 (143-200)

해화동사무실 서울특별시 중로구 명륜동 1가 29-4번지 대보빌라 8차 노들장애인야학교

전화 | 야학 (02) 446-9101 사무실 (02) 766-9101 전송 (02) 766-9102

홈페이지 <http://www.nodl.or.kr> 전자우편 nodl@paran.com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정상욱, 김명학, 문종국, 이미정, 배덕민, 편집디자인 디자인샘(2273-1571)

노들바람

노들바람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이 야 기 구 성

노들바람

[노들바람을 여는 창] 02

우리안의 이야기-노들의 일상

노들인의 밤 04

노들강좌 10

우리안의 이야기-노들의 고민

교사수련회 14



밀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활동보조인제도 쟁취 20

노란들판을 기억하며

노들에게 22

노들을 떠나면서 23

퇴임사 24



명학칼럼

노들의 의미 30

함께하기

2007년 2월 후원자 명단 31

노들인의 밤

노들야학 최대의 쇼! 노들인 모두가 긴장하는 그날, 14번째 노들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감동과 환희의 도가니, 그날 저는 감동의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했지요. 아무튼 그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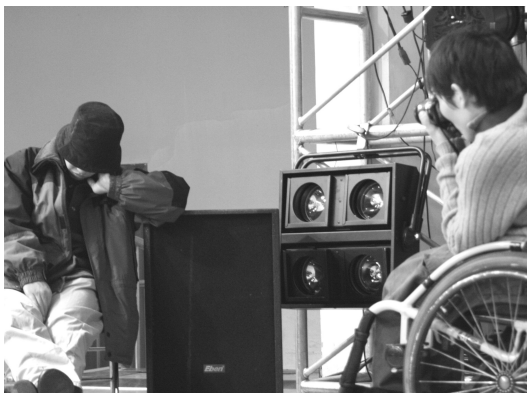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신임교사가 선뜻 메인진행을 맡더니,
그동안 울린 여성이 한 타스 이상이라는
그 말뼉을 거침없이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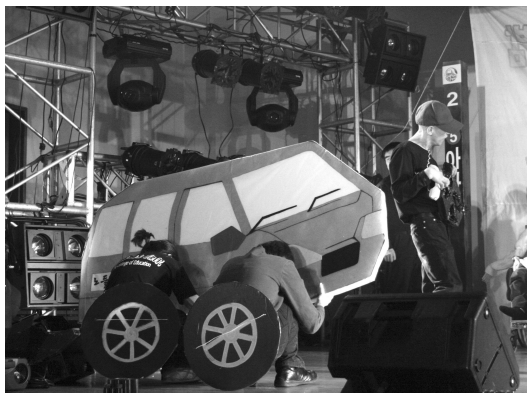


몸짓을 생각하는 진호- '틀리지 말아야지...'
몸짓과 하나된 소진- '여기서 감정을 실어...'
몸짓을 쫓아가는 병준- '다음 동작이 뭐더라...'
수화팀의 멋진 공연!

빼걱거리는 몸이지만
 하늘거리는 옷으로 살짝 가려본다.
 허나 내 마음만은 나비인들 쫓아올까...
 내 희망만은 바람인들 따라올까..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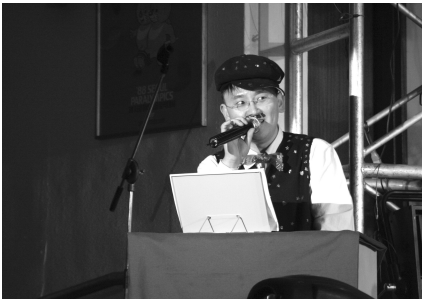


노들밤...
 그건 때론 '지침' 이라는 CO2와
 '피곤' 이라는 노폐물을 만들어 내곤 한다.
 허나 건강한 노들인은 그걸 곧 잘 걸러
 밖으로 배설할 줄도 안다.
 '노들사랑' 이라는 신장이 있기에.. "순간포착"



오늘은 노들인의 밤 하는 날이다.
 그동안에 연습을 한 것 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많이 오셨고 음식들도 많이 있었고 재미있었다.
 노들의 밤 하이라이트 연극에서는
 노들의 일상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사람바뀌가 재미있었다. (미정누나 후기)

이번 연극의 백미.
 그를 생각지 않고 이 순서를 만들 순 없었다.
 연습기간 내내 살짝 빠딘 순성형,
 결국 당일날 그동안 쌓아 두었던 능청스러움을 보란듯이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이제는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할 희... 순결하게 살아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웃음만은 노들의 연인 희를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세 번째 마임.
 깃대 끝에서부터 손으로,
 온 몸까지 무언가 비장함이 흐른다.
 뒤늦게 참여해 음악에 전동을 밀착시키는 몸짓을 보여준
 정이와 재현의 모습이 보일 듯...

이게 뭐꼬... 노친네들의 허리엔
 연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입에선 허용치 이상의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끝까지 쉴 틈을 주지 않는 신탐장...
 그러나 이 툭툭거리는 엔진
 한 번 끝까지 가보리라. "지친 노인네"



좌... 그는 분명 우리를 보고 있겠지.
 우리도 좌를 보고 있었는데...
 서로의 마음도 주었건만
 서로의 마음을 보진 못했었던 건가...
 보고싶은 좌...



별로 그닥 좋아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수연.
 노들밤 연극에 생일까지 겹쳤다.
 멋진 박준동지의 라이브 생일축하곡까지.
 부러울 것이 없는 하루였다.



좌의 공연테마는 항상 꿈. 자유. 이런 것들이다.
우리... 이젠 이 어항 속에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저 바깥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순 없을까...

뭘 보고 있지 애들아...
 그 눈에 우리 모습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귀염둥이”



빠방한 음향, 화려한 조명,
 완벽한 진행은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애쓴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들인의 밤 일등공신,
 노들의 모범정답 정구샘.



육창에 감기에 몸이 안 좋으신 교장샘,
 여기저기 회의에 집회에
 몸이 바쁘신 교장샘,
 하지만 노들인의 밤은
 마냥 기쁘기만 하시다.



와~ 이렇게 대단한 노들인의 밤. 이걸 누가 다 준비했담?!
 자그만한 체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
 감쪽한 안소진의 작품입니다.
 까칠하고, 말 많고, 불평불만에 해달라는 요구도
 많은 노들인들을 얼래고 달래고, 때론 욕하면서,
 노들인의 밤을 준비했다지요.
 준비팀장~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노들강좌

-정리: 교사 홍송대

#1

노들강좌 준비팀 회의에서 두 교사는 대략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 A :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꼭 수업뿐만이 아니라 야학의 대외활동들에 대해서도 그냥 가야하니까 가는 거지 자신이 '왜' 가는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이번 노들강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왜 그러한 입장을 가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 B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훈련(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야학에선 자신들에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훈련들은 많다. 각반 회의, 총학생회, 학생세미나 같은 것들에서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 사안에 관한 지식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숙지하고 그 위에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여야만 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몰라서 생긴 편견이나 괜한 고집 같은 것들이 그대로 굳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강좌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에 다 할 순 없겠지만 지금 장애인운동의 주요 현안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 했으면 좋겠다.

- A : 그 지식이라는 거... 상대적인 것 아닌가?? 학생들이 알아야만 하는 객관적인 지식을 어떻게 선별하나?? 그것조차도 교사의 견해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 B : 사실 그렇긴 하다..... (우씨!!) 여튼!! 지금 야학의 토론문화는 문제가 많다. 다양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대로 인정되어 버린다.
- A : 다양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들이란 것이 무언가??
- B : 대표적으로 '모르는 것' 이다. 학생들 얘기를 듣다보면 정말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땐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이러이러 한 것' 이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학에서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다는 차원에서 그러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식이라면 그 안에서 개개인의 발전은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 A : 그건 맞는 것 같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가르칠 필요가 있다.
- B : 흠.... 방법만 잘 고민한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case study!! 첫째날은 장애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날은 첫째날 토론했던 내용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 A : 좋은 것 같음.
- B :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토론이라는게 좋기는 한데, 진행하는 교사의 내용이 많이 필요한 방법인 것 같다. '그냥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툭 던져 버리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 내고 위에서 말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교사가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A : 교사의 역량 문제다. 그런데 그러한 역량은 하루 이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 이번에는 '토론 지침서'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토론을 진행하자. 구체적인 부분까지 예측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미리 고민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 B : 괜찮은 것 같음. -이러한 논의가 오고간 후 A, B 두 교수는 맛난 '원장비빔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계산은 A가 했습니다)





#2

그날 이후 구체적인 실무를 분담하는 한번의 준비팀 회의가 더 있은 후 각자는 각자의 역할대로 노들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은 며칠 뒤 사람들을 감탄케 할 모의법정 소품들을 만들기 위해 땀한땀 정성들여 바느질을 했을 것이고, ##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고, \$\$는 모의법정에 참가할 사람들을 섭외했고, %%는 딱딱한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연극용으로 각색했으며, oo는 인터넷으로 사례를 찾고, 토론 지침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라는 말을 전합니다.

#3

첫째날 자유 토론

토론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시된 사례는 '장애인전용도시'.
주어진 명제 '분리는 차별인가 차별이 아닌가..'에 관하여 두 개의 모둠을 나누어 각 모둠별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분법적 대답구도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토론에 활력을 주는 나름의 흥행요소인지라, 진행자는 일단 이런 대답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학생들이 이미 '분리는 차별이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바, 진행자가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참가한 교사들이 노련하게 반대입장으로 토론의 균형을 잡아주어 어느정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 교사들은 사례를 고민하면서, 이 정도면 학생들 의견이 반반으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오랜 차별경험으로 차별을 직관적으로 포착해 내는 것 같습니다.
직관수준의 인식들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식으로 고양하기 위해,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 고민하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노들이야학 교육의 역할이어야 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하였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간 야학의 토론 문화가 가진 미숙함 같은걸 느꼈습니다.

요컨대, 문제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 제시된 문제에 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관해 자신이 받은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쭉 나열하는 식입니다.

‘분리는 차별인지 차별이 아닌지’ 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이 가진 차별에 관한 경험들을 나열하는 학생들의 말을 부러 막으며,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라 분리가 차별인지, 아닌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달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 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왜’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꽤나 힘들어 하셨습니다.(역시 훈련이 필요한 것 같네요)

토론은 그렇다면 ‘차별이란 무엇인가?’ 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구별과 차별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누군가 그 기준에 대한 자기생각을 얘기 하면 그에 대한 반론을 받고, 그 반론으로 최초의 견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은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입사시험에 떨어졌을 때 처럼, 생활에서 중요한 직장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걸 두고 차별이라 부르지 않는다’ 는 반론이 제기 →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중에 개인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구별하면 이걸 차별이다’ 로 수정

-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차별이다’ → ‘범죄자를 처벌하는 경우처럼 그 사람이 하고 싶은걸 못하게 한 것이지만 차별이라고 하진 않는다’ 는 반론이 제기 → 최종주장 철회

-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장애인이 못하게 하면 차별이다’ → ‘장애인은 군대를 가지 않지만 이걸 두고 차별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할 수 있는것(권리) 과 해야만 하는 것(의무)을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는 반론이 제기 →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장애인이 못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이 못하는 것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차별이다’ 로 수정.

#4.

둘째날 모의 법정

모의법정을 위해 준비된 사례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규정의 차별성 여부’ 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참고하여 연극적으로 각색한 대본을 교사들이 원고, 피고, 판사 역할을 맡고,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참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개의 쟁점으로 원고(차별로 인한 정신적 데미지 때문에 머리에 꽃을 꽂은)가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 피고가 반박을 하고, 판사와 배심원이 함께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판단은 어제 토론처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실제 차별을 판단하는 내용에 맞게)칠판에 그려진 순서도 대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을 통해 목표한 바는 차별에 관하여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사회는 차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판단방법을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숙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칠판의 그려진 순서대로는 잘 하신것 같은데, 그 칠판의 내용은 얼마만큼 자기것으로 가지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름 자기자기하게 재미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감흥은 별루 없었습니다

#5

결론

.....
어쩌라고요 _.,_.



겨울 교사 수련회

한학기 평가

| 특활반 평가 |

- ★ 연극반 : 이번 학기 특활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죄송했다. 담당자인 C형이 어떤 생각으로 시작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초 연극반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연극도 보고 동해에 가서 회도 먹고 했으나 나중에는 그냥 노는 반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어떤 수업을 맡게 되면 그 수업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진행되어야 할듯하다.
 - ★ 영상반 : Y형과 J형이 진행했는데 영상활동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직접촬영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학생분들도 좋아하셨다. 노들인의 밤에 보였던 결과물은 너무 좋았다. 다음 학기에도 영상반이 진행되려면 담당교사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교사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후임교사를 알아보는데 주력하자.
 - ★ 음악반 : 작년 여름에 급작스럽게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아 2학기에도 계속 유지하였다. 나름의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음악을 통해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다음 학기에도 음악반을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 중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상식반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다. 뜻있는 다른 교사님들 참여를 기다린다.
- 특활시간 일정을 확실하게 정하고, 계획도 미리 완벽하게 정해서 진행되어야 할 듯하다. 특활수업도 수업의 하나로 인식 하게끔 노력해야 할 듯.

| 교사회회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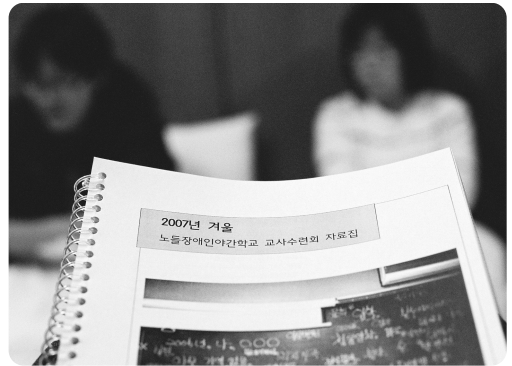
- ★D> 교사회회의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개인적 차원의 고민으로만 남는 듯하다. 객관적인 평가들을 만들어 의식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노들바람에 대한 평가는 노들바람을 만드는 편집부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체크리스트(평가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명시항목이 있어야 사람들의 참여도 유도하기 쉽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쉬울 듯 하다.

★R) 중요하다고 생각된 안건들을 뒷풀이로 넘기거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후에 처리가 잘 안되는 듯 하다.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건들을 공유하고 해서 회의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만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사회회가 항상 시간에 촉박하게 쫓기는 느낌이 강하다. 정말 술이 마시고 싶고 하면 차라리 회의를 하면서 옆에 술을 한잔 따라놓고 시작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집중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한다. 논의 안건은 미리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해서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난 뒤 그 회의에서는 짧고 굵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각 단위 보고라던가 생활 공유, 수업 공유 등을 짧은 시간으로 단축시켜 회의 전체를 짧고 간결하고 알차게 보냈으면 한다. 소소한 내용까지 굳이 교사회의에서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교사회의가 끝나고 나면 뭔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남는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R) 그리고 교사회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되었으면 한다. 언제부터인지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참가하지 않는 듯하다. 가끔씩 집안일이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불참은 이유하지만 장기적으로 불참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D) 의무적으로 교사회의 참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다른 보조적인 방법, 회의록을 본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학에 다른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해서 교사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다.



| 각부 활동 평가 |

★총무부 평가

R) 다시 하라면 올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다. 총무로서의 역할을 몰라서 여러 사람들, 특히 N에게 의지하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총무로서 빠짐없이 야학행사에 항상 참여하면서 보낸 1년은 큰 의미가 있고 좋은 경험이었다. 다시 하라면 잘 할 수 있을 듯 하다.

일동> 그럼 다시 해~ (~*)

R) 부족한 금액과 분실된 영수증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격정마세요. ㅠ,ㅠ

D) 영수증 잘 챙기세요.

★교육부 평가

J) 필요성과 방법을 몰라서 많이 해했던 한 해였다.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활동이 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신입교사 10여분 중 현재 2명이 있고 설 이후 2명 정도 더 있을 듯하다. 학생세미나가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고 교사세미나 역시 의지 부족도 있었다. 현재는 교육부 내부의 역량강화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몇몇 교사가 의기투합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N) 학생세미나의 진행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D) LT 회의내용인데, 학생세미나 진행은 교육부로 넘어갔고 각 반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된 것 같다.

일동> 아무튼 척박한 토양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우리의 교육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H) 노들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면(어렵다, 반복되는 주제이다)이 많은데 굳이 강행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반응을 수렴하면서 강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S)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특히 교양(?)의 측면에서 좋다고 본다. 나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강좌를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N) 예수전을 제외한 것은 교육부에서 제안이 되었고 학생들의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이다.

D) 야학 구조에 맞는 소통의 방식을 만들어 내자.

★편집부 평가

O) 책임감이 많이 부족했다. 부원들의 열의를 살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 부원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편집부회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시간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구조적인 고민과 지원이 필요할 듯 하다. 부원 글쓰기 등 편집부 내부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노들바람 발행 시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서 구성·기획을 교사회의에서 공유하고 논의를 하였음 한다. 백일장, 웹진 등 사업 발전에 대한 구상들을 많이 생산해 내야겠다.

D) 노들바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G) 목표와 기획의도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듯 하다.

M) 노들바람의 정체성은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들바람은 그걸 충분히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이야기와 외부의 중요한 이야기를 적절히 담아내고 있다.

일동> LT와 첫 교사회의에서 편집부장의 기획의도를 다 같이 공유하고 평가제안 틀을 만들면 될 것 같다.

| 각반 분반문제에 대한 고민 |

- ★J> 과거에는 C반내에는 편차는 좀 크지만 보통의 평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평균이 잡히지 않는다. 진급을 하고, 또 W반 학생들이 올라오셔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너무 잘하는 사람, 독특하게 너무 더딘 사람 등등, 수업보조가 있어 그나마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갑갑하다, W과 C반의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수준이 좀 더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진급' 문제가 그냥 교사수련회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긴밀히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정해져야 할 듯 하다. C반 수학만의 문제인지, 교육과정의 문제인지 고민이 된다. 다음 학기에도 분반을 해야겠지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 ★D> 진급문제는 그렇게 성급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G> 각 교육과정이 담당해야할 영역이 명확해야 한다.
- ★R> 진급의 커트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 ★D> 기준!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개인의 과목별 편차도 너무 심한데? 그렇다면 어쨌든 국어가 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G> C반이 계속 분반을 해야 한다면, W반과 이런 상태로 분반되는 건 아닌 것 같다.
- ★R> W반과 다른 것이, C반은 과학과 사회가 있다. 그런데 C반 학생들도 사회와 과학 수준이 낮은데. 굳이 C반에 과학과 사회가 꼭 있어야 하나요?
- ★N> 전에도 국어와 수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학과 사회를 1시간씩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문예교육의 히로인 O누나는 요약집을 하나 줘서 공부를 하니까 사회공부가 되더라. 국어, 수학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데 국어가 바탕이 되어야 사회공부도 되고 과학수업도 되는거 아닌가. 사회, 과학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국어, 수학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M> 전에는 날짜를 하루 늘렸었는데 교사 수급이 안되서 한학기만에 폐지했다. C반 국어, 수학시간에 W반과 통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C반 학생중에 국어가 떨어지는 학생은 사회와 과학시간에 W반 국어수업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 C반과 W반을 합친다고 해도 교사가 부족해서 C반 수업날을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C반과 W반을 합치되 W반의 모습을 국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국어를 중점으로, 수학이 부족한 사람은 수학을 중점적으로 보충하는 건? 현재는 국어를 중심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국어는 문제가 없는데 수학이 문제의 중심이다. C반에서 나중에 진급을 해서 B반에 가면 국어는 문제가 없어도 수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현재의 반을 나는 개념을 벗어나 전과목을 수준별로 나누면 안될까? 그렇게되면 그 당시에 모든 교실에서 한 과목을 수업을 하게 되려면 교수들의 시간 문제도 있고, 시간표짜는 것도 문제가 생길듯하다.

- ★G)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어중심의 분반이고, 수학실력의 차이이다. 야학의 학제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아닐까. 이번학기에는 무엇보다 수학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번 학기에는 국어와 수학시간에 과학과 사회를 녹아내서 시간을 늘려보는 방법은 어떨까? (예를들면 사회교과서 지문을 이용해서 국어 수업들 진행하는 etc...) C반 수학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매번 임기응변식 수업을 하고 있다. W반의 존재이유와 반별 구분의 명확성이 부재하다. 가능하다면 자기수업은 시간대로 듣고 자기가 부족한 과목은 빈시간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안될까?
- ★D) 반을 계속 분배해나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듯 하다. 확실하게 반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총체적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 ★R) 그러면 각 학생들의 개인학업관리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되지않을까? 각 과목 담당 교사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강화하고, 각 과목 수업교사끼리 진도의 범위 등을 계속해서 이야기(영어 1,2 수업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하자. 사회와 과학 시간에 원하는 사람은 국어와 수학 심화수업을 듣도록 하자.

| 학업 인증제도(반별 졸업식), 과목별 진도편성 |

- ★G) 국어와 수학부분만 잘 정해 놓으면 될 것 같다. 좀 더 명확한 단계를 정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학도 그렇고.
- ★D) 국어중심으로 나누다 보니 수학에서 고착되는 부분이 있다. 각 수업마다 영역을 정하는 부분은 과목별 교사모임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수학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 ★J) 만약 편제가 국어중심이었던 수학이 따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히 감수해야 되는 문제면 논의를 크게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
- ★N) O언니 같은 경우 계속 W반에서 한사람과의 관계만 맺어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늘려보려고 그냥 C반으로 수학을 무시하고 간 부분이 있다.

방법1. C, W반을 통합해서 국어, 수학 기준으로 기초, 심화로 나누자.

방법2. 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W반에서는 국어, 수학 둘 다 되어야 올려 보내는 걸로 하자.

일동) 이번학기에는 책임 있는 논의와 시험을 하고, 다음 학기에 개편의 여부를 논의하자.

| 과목별 교사모임 |

- O) 각 수업의 과목별 진도를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각 과목 혹은 각 반 수업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일상적으로 있어으면 좋겠다.
- S) 그런 문제의식은 많이 했다. 따로 시간을 만들기보다 교사회의에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자료백서 |

- N)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각종 자료들이 완결된 형태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노들인이 된다는 것...

예술가에게는 하얀 종이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넓고도 텅 비어있는 종이를 남들과 다르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얀 종이를 앞에두면 마음이 편안해 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쓰던지 어떤 그림을 그리던지 그것이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노들에서 처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수업을 할지, 학생분들께는 어떤 교사로 남을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의미로 남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은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순간이라 생각하기에 어떤 의미로든 남고 싶은 간절함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참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어떠한 색을 만나도 그 색과 융화할 수 있는 흰색을 지니기도 했고, 어떠한 색을 만나도 본연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는 검정색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얼핏보면 모순 투성이 같아 보이지만, 노들이라는 새로운 들판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의 흰색과 그러면서도 '이진호' 라는 본연의 인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레고 떨립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훗날 제가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지금을 출발과 노들의 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복했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듯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노들.

참 많이 반갑습니다!! ^^

【 밀물이 되고 불씨가 되자 】



저는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나이는 41살, 시설 생활이 너무 지겨워서 뒤늦게나마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활동보조인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밥도 먹을 수 없고, 씻는 것도 못하고 밖에도 한 발짝도 못나갑니다. 아파도 약도 못 먹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화장실도 못 갑니다. 비장애인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갈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급하면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행복감을 비장애인들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 에게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2006년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43일간의 노숙농성, 그 칼바람위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4월18일 49명의 동지들이 삭발을 하고, 또 4월 27일 휠체어를 버리고 한강대교를 기어서 갔습니다. 5시간 동안 을. 5월1일 서울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아갈듯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건 복지부지부 지침이라고 차상위계층 200 최대80시간을 준다는게 그리고 시간당500원 자부담을 하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8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 2분인데 그 2시간 2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영화한편 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동안 뭘 하라고 할 겁니까? 우선 밥을 먹으려면 요리도 하고 밥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해야지 되는것 아닙니까? 씻기도 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비장애인들도 2시간 2분동안 아마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보고 2시간 2분 동안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라고요? 12월 1일부터 하루에 2시간 밖에 이용 못 합니다. 오전에 10시에 활동보조인이 옵니다. 먼저 청소를 합니다.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요리하고 국 끓이고 밥을 먹습니다. 그다음 밥을 먹자마자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휠체어를 태워 줍니다. 그 시간은 2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다른일은 전혀 못합니다. 필기나 컴퓨터작업도. 저는 또 학생입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저같은 경우는 야학에서 공부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반 인데, 혼자서 휠체어에서 못 내립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리 내집이라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비참한 현실입니까? 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 활동보조인을 하루에 딱 2시간 2분 밖에 이용을 못한다면, 아

니 그럼 하루에 2시간 2분 말고 나머지 시간은 밥먹고, 화장실가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살아가는 겁니까? 목숨만 붙어있다 뿐이지 죽은 송장과 같지요. 보건 복지부와 서울시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것

활동보조인제도 생취

-보도국장 배덕민

도 중증 장애인들에게 살인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총을 쏘서 죽여야지 살인은 아닙니다. 칼을 찔러 죽여야지 살인이 아닙니다. 천천히 숨통을 조여 옵니다. 지금 보건 복지부와 그리고 서울시가 2007년 서울 하늘 아래에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나라가 이런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죽을 수도 없고, 살라도 사는 의미도 없고, 하루 하루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기는 싫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나서 정책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것 아닙니까?

노들에게

휴직교사 안민희

얼마 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이야기를 읽었어. 닭장 속에 갇혀 주인이 주는 모이를 허겁지겁 먹기에 바쁘고 하루하루 알을 낳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암탉들 속에 “잎싹”이라는 암탉이 있었지. 꿈이라는 것을 가진, 알을 품어 병아리를 키워보고 싶다는 꿈을 가진 잎싹이라는 암탉. 그런 잎싹에게 닭장 문틈으로 보이는 마당은 너무나 다른 세계였어. 제 몸 하나 꼼짝달싹할 없는 닭장과는 달리 수탉과 암탉과 오리들과 늙은 개가 어울려 노니는 마당은 잎싹에게 정말 꿈같은 곳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된 잎싹은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지게 돼. 아직 숨이 붙어있던 잎싹을 노리는 아주 무서운 눈빛의 족제비가 있었는데 나그네라는 청둥오리가 잎싹을 구해주게 되고 날개를 다쳐 마당에 엎혀살던 나그네를 따라 잎싹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마당에 가게 돼. 하지만,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마당 식구들은 털도 송송 빠지고 냄새도 고약한 볼품없는 잎싹을 결코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수탉은 매몰차게 잎싹을 내쫓았지.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 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했어.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당 저 끝 아카시아나무 아래 눈치를 보며 신세를 지던 잎싹은 결국 마당을 나가기로 결심하지. 잎싹이 그렇게도 살고 싶던 마당은 더 이상 그 마당이 아니었거든. 나그네도 뽀얀 오리를 만나 마당을 떠났는지 더 이상 마당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들판, 언제 어떻게 족제비에게 당할지 모르는 들판을 향해 잎싹은 조심 조심 걸음을 옮겼지. 그때 숲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소리를 찾아간 짙레덤불 속에는 아주 예쁜 알이 어미를 잃은 듯이 놓여있었어. 잎싹은 어미가 올 때까지만 알을 품어주기로 했어.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도록 어미는 돌아오지 않았지. 알은 참 따뜻했고 껍질 속에서 뛰는 심장소리의 느낌도 참 좋았어. 잎싹이 그렇게 바라던 일, 드디어 알을 품게 되었던 거야!

어느 순간 짙레덤불 바깥에 마당을 나갔던 나그네가 나타났어. 아주 지치고 슬퍼 보이는 얼굴로. 나그네는 잠시 사라졌다가 물고기를 물고 와서 말없이 짙레덤불 앞에 놓고 갔지. 나그네는 그렇게 날마다 물고기를 물어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산등성이에 올라 □□□□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춤을 추었지. 알을 품는 잎싹에게 그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 그렇게 날들이 지나 차올랐던 달이 다시 기울었고 알이 깰 때가 되었어. 잎싹이 나그네에게 알에 대해 고백하려 할 때, 나그네가 잎싹에게 그래.

“잎싹아, 너는 훌륭한 어미답이야. … 나는 날지 못하게 된 야생오리고, 너는 보기 드문 암탉이야. … 그러면 된 거야.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때가 되었음을 안 나그네는 잠이 들었지. 그리고, 언젠가 들었던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족제비에게 물려 축 늘어진 모습으로 사라져갔어. 그 때에야 잎싹은 모든 걸 알았지. 잎싹과 알을 지켜주기 위해 밤마다 깨어있던 나그네를. 그



지치고 슬퍼 보이는 얼굴을.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돌아오니, 짙레덤불 속에서 보송보송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이 작지만,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어린 아기가!

잎싹은 아기와 같이 들판에서 살아가. 그저 두려워했던 족제비에게도 당당히 맞설 만큼 멋진 어미답으로 자라지. 나그네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어미답, 다르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미와 아기로.

“잎싹”이라는 이름은 제 자신이 지은 거야. 숨쉬고,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간직했다가 눈부시게 하얀 꽃을 키워내는 잎사귀, 꽃의 어머니인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이름 잎싹. 그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이름이 아니게 되었어.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건 참, 기분 좋고 가슴 두근거리는 일.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참 다르지만 사랑했으면 좋겠고, 서로를 불렀으면 좋겠어.

서로 참, 원했으면 좋겠어.

보고 싶은 거야. 잊지 않을 때까지.

2007년 3월 3일, 민희



노들을 떠나면서...

퇴임교사 좌담업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냥 우울한데 잘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겠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남은 인생을 노들에서 보낼 것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다가온 이별에 내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다짐하였지만 막상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만들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내 모든 걸 접는다. 관계들을 풀어내지 못한 나, 결국 서로를 못 믿은 거라 생각한다. 뭐라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나는 생명을 위해 나의 의미를 포기했다. 우울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어리지만 나는 더 이상 설 수 없었다. 말 한마디면 풀 수 있는 것을 노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내 자신도 굽히지 않았다. 난 승숙이에게서 나를 보았다. 선동이형에게서 나를 보았고 현정에게서... 또 다른 누구들에서 나를 보았다. 난 그렇게 벼랑 끝에서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갖고 있는데 노들은 그걸 나에게 버리라 한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사람들을 버렸다. 내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노들에 있던 나의 삶도 남는 건 없어져 버렸다. 노들을 떠나면서 내 귀에 들리는 건 '난 그동안 뭐였지?' 라는 물음뿐...

노들에서 기억에 남는 건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난타연습을 위해 모였던 13명의 학생들과 나 혼자 남았던 날... 어느 반 단합대회에 교사들은 오지 않고 반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공통된 점은 어느 교사들도 다 올 것처럼 이야기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참석 못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었다.

나는 교사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다. 노들을 지켜온 것은 활동가도 교사도 아닌 바로 학생들이란 거...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학생들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인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아니 노들을 지켜온 사람들 앞에서 우린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난 두렵다. 아니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러나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떠난다는 것은 모든 미련까지 정리해야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이 글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상투적이고 식상한 말들 같지만 이 말들에 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 한다.

모든 사람들 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 지세요. 정말 정말 행복해 지세요. 저도 행복해 질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절 빛나게 했고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족해요. 서로 상처주지 말고 아껴주세요. 얼마나 가까운 시간인가요... 이해하고 소통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퇴임사

-퇴임교사 윤희

참, 나, 퇴임사라니...

퇴임한 것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퇴임사를 쓰라니...너무하네...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미루다가 편집부장님의 압박에 미안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노들 야학,

이 나에게 무엇이었나?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하는 생각부터 해봅니다.

노들 야학과 인연을 맺게 해준 해피는 한 달 만에 날 떠났건만, 2년 반이 지나고서 난 노들에서 떠나라는 듯한(--;) 퇴임식을 했지만, 나에게 퇴임사를 쓰라는 말에 어색함을 느끼는 어리버리한 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노들야학은 포장마차고, 월체어고, 명학이 형이고, 덕민이형, 소진이, 알찬이, 동엽이 형..... 등등의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같은 공기로 호흡하던 순간의 충만함입니다.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다 싶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야학을 나와 밖에서 내려다보기 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서

야학을 힘들어하고

떠나가는 이들에게

어머니같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야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이제... 참, 두서가 없습니다.

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간 지 한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의 일이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피땀는 것도..^^

이것도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먼저 친절히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검사는 깊은 곳에 있는 동맥을 찌르는 거니까,

매우 아플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맥박이 약한 사람은 여러 번 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해 드릴테니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길 하니 환자분도 안심하고

저도 부담감이 좀 떨어지면서, 잘 되더라구요.

오히려 끝나고 나면, 많이 아플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잘 해주셔서 하나도 안 아팠다는 얘길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협박이 반이기도 하지만, 신뢰가 중요합니다.^^

.

.

.

자꾸만 현재의 눈앞에 닥친 일에만 급급하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내 모습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 노들 사람들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언지,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녹여낼 수 있도록

자꾸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는 서른인데,

아직도 애처럼 상상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그렇습니다.

주절주절, 두서 없는 말이 너무 길었네요.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노들!!

앞으로도 자주 뵙고,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제 소식도 들려 드릴게요,

어디서?

뭐, 포장마차나...야학이나...^^

다들 한 해 힘차게 살고 풍성해 집시다!!



당신들, 이러기야~~~ 가길 어딜가!!!

퇴임교사에게 보내는 항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회자정리라 했던가요?
그동안 노들이란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가족처럼 함께
웃으며 울며, 때론 지지고 볶으며 싸우며 지내던 노들인,
이들과의 헤어짐은 매년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순
간 앞에서는 모두가 후회와 아쉬움에 가슴이 메어져 옵
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는 거자필
반이란 이야기를 더욱 믿기에, 더 멋진 만남을 기대하기
에 그들의 발걸음에 짧은 인사말을 보냅니다.

to.
동업

- 우리에게 웃음도 주고, 가르침도 줬는데, 털털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연극, 음악 너무 멋졌어요. 우리 곁을 떠난다니 너무 섭섭합니다~~~~~ㅠ,ㅠ
- 웃긴 말을 해도 안 웃기지만, 좌동엽! 복귀하라~~~!
- 선생님, 그동안 재미있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 사랑해요~~~
- 감사합니다~~!
- 가길 어딜간다고..... 우릴 두고, 어디가!
- 산만하고 썰렁한 좌동엽, 자주자주봐요~
- 미운이 말은 무조건 이하동문!!!
- 좌동엽 없는 노들야학은 색소 없는 팬돌이와 같다. 어서 돌아오세요. ^^*
- 산만한 동업이, 다시 보고 싶다. 아직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다.
- 처음 등하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 알고지낸지 얼마 안됐지만 정이 들어서 보고 싶습니다.
- 부담 없는 얼굴, 나온 배. 그림다. 좌동엽.
- 어리버리, 좌가 없으니 심심하네.

to. 알찬

- 찐빵같은 알찬아! 영리심히 일해서 우리 밥 사주라~
- 알찬 이알찬 낮에도 보고 했는데 밤에 보면 더 좋은 알찬아.
언제든지 복귀해라. 모든 사람이 대환영한대~
- 너의 그 배가 보고 싶다.
- 알찬선생님, 가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여운 알찬아, 올 여름에 누나가 팩 사주께. 예쁘게 피부 가꿔~
- 만두 같은 알찬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 쌍쌍 자전거 타고 어딜 가니? 노들야학에서 같이 공부하자
-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야학으로 돌아와~~

to. 민희

- 없는 것처럼 와서 가르키는 조용한 민희야. 제일 착하고,, 보고싶다.
- 민희야, 나 집회 안나가기로 했어. 그래도 전화해주라~
- 경북공에서 제일 처음 본 안민희, 성격도 좋고 바쁜 민희,
개성 강한 민희 자주 와라
- 이제 알게되었는데, 헤어져서 아쉽다.
- 미니야~ 보고시파~~~~~
- 민희가 누구야?
- 언제나 조용히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건강하게 현장에서 보아요^^

to. 윤희

- 윤희, 우리 야학에도 의사가 있다는게 정말 좋고 행복해.
자주 놀러와~
- 윤희야, 열심히 일해
- 많이 가르켜주셔서 고맙습니다~
- 아름다운 윤희, 이슬같은 윤희, 햇살같은 윤희, 보고싶다.
건강하고 행복해라. 피땀으로 맨날 갈게
- 따뜻한 의사선생님이 되시길
- 윤희선생님의 재밌는 수업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 내가 돌아왔더니 윤희가 의사선생님이 되어서 없네.
나의 인생 상담은 누가 해주나? 보고싶다!
- 응큼한 희~ 부자되서 돌아와야대~~~~~*~*
- 아차산 어디서든 부르면 30초!!! 희, 기대하게쓰~~~
- 순결한 30의 희. 영원히 순결해야해~

【 노들, 그 한해 】 노들야학의 1년 행사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들의 학생, 교사, 동문,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4년을 걸어온 발걸음으로, 새로운 한해도 열심히, 치열히 살아가겠습니다.

1

노들야학 반 이름은?

우리가,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반
 소나무처럼 늘 푸르다고 — 청솔반
 그리스 신화에 나온다고 — 불수레반
 무엇이든 당당하게 한 목소리 내자고, 장애해방의 한
 목소리 내자고 — 한소리반

2



검정고시

“비싼 매실음료는 시험보는 학생분들만 마시고,
 머리 나빠지는 콜라는 교사들이 먹어요”(홍송대) 2001.5
 “오늘은 식목일이자,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나는 희망의 작은 나무를 한 그루 심고 돌아왔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강병의) 2001.5

3



420

몸뚱이를 집 밖에 내어 놓는 순간 몸뚱이와 함께 목숨을 내어 놓는다.
 아찔한 일상. 죽거나 쳐박혀 있거나..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이들의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알아주는 이
 없는 시궁창에서도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 그러한 몸부림이
 숨쉬는 생명의 살아있음이었다. 그러한 몸부림을 펼치면 우리네 삶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
 - 노들바람 43호(2003. 여름특집).알숙

4



개교기념제

저는 야학을 보면서 너무나 느낍니다. 남들과 함께 기둥을 오르던 애
 별레가 아픔과 두려움을 딛고 제 스스로 고치를 만드는 것을, 어느 새
 허물만 남기고 힘차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을 야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내일엔, 그 나비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어느 날은, 우리에게 알찬 열매를 보여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그 시절을 함께 했던 너무나 그리
 운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2001.7 장선정

5

모꼬지

전동을 들어 날라야 하고, 여차하면 전동이 망가 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란 말인가? 여기가 바다인 것을.. 집구석에 처 박혀 1평도 채 못 될 창으로 보던 하늘을 꼭 닮은 바다 빛깔에 우린 이미 미쳤다. 여기가 하늘인지 바단지 여하튼 자유로운 한때다.

- 2005년, 모꼬지 이알찬



6

노들강좌

세상을 사는 공식 중에 나는 노들방정식을 좋아한다. 방정식은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등식이지만, 노들방정식은 참과 거짓을 세상의 잣대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집함이 열려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노들방정식을 증명하려 한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면 볼수록 나는 노들방정식을 보여 줄 것이다 - 노들바람 48호 (2004. 4?5)



7

노들인의 밤

'다르다' 라는 것은 내 숨으로 숨쉬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흘리는 땀이 내 것이라는 말이다. 굳이 '창조' 를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개미는 길을 만들고, 새는 날아 창공에 길을 열 것이며, 물고기는 나를 따라 헤엄칠 것이다. 따라서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 노들바람 36호 (2002. 5)

“노들의 의미”

-한소리반 학생 김명학

하반기를 마치면서 퇴임과 졸업식을 했다. 그동안 함께 했던 교사, 학생들이 노들을 떠나는 시점에서 서운함이 많이 남는다. 노들에서 함께 했던 나날들, 서로의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슬픔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노들을 떠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퇴임과 졸업을 하지만 우린 영원히 노들이란 공간에서 계속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 노들이란 공간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노들을 떠나서도 그런 마음들을 변함없이 계속 노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생활 했음 좋겠다. 나는 떠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한다. “한번 노들이면 영원한 노들이인”이라고. 그동안 교사, 학생분들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그리고 항상 웃는 날들이 많길, 건강들 조심하길 바란다.



2007년 2월 후원

| 자동이체 |

황미향, 안성희, 힘찬 박수!, 이하나, 박경순, 박미현, 이현숙, 박성희, 안수희, 김동호, 배태섭, 이호중, 김미선, 정진용, 오선실, 권현실, 정병배, 김기형, 배상군, 손우정, 김종기, 박종철, 원유훈, 류인규, 은종복, 이민규, 윤종배, 서금석, 고명선

| cms후원 |

강경완, 강광숙, 강미향, 강병완, 강병희, 강정자, 강주성, 강현욱, 강희관, 고아라, 고양숙, 고제현, 고택호, 광노근, 구수준,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순성, 권재수, 권태국, 김경민, 김근식, 김기동, 김기룡, 김대성, 김덕훈, 김도현, 김도훈, 김동진, 김두경, 김명학, 김문주, 김문호, 김미애, 김범식, 김병기, 김비호, 김상윤, 김선옥, 김수열, 김순주, 김신자, 김애경, 김연선, 김연희, 김영희, 김우경, 김유미, 김유진, 김은미, 김은찬, 김재경, 김정구, 김정숙, 김정연, 김정하, 김종윤, 김지숙, 김지혜, 김지희, 김창보, 김태인, 김하늬, 김현정, 김혜미, 김혜옥, 나선영, 나혜니, 남정식, 노혜련,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문성훈, 문창배, 민점식, 민혜숙, 박경석,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누리, 박미희, 박민영, 박상일, 박상호, 박성일, 박성희, 박순양, 박시백, 박아일, 박영환, 박은정, 박인화, 박장곤, 박장근, 박재국, 박종필, 박진우, 박 철, 배운주, 백미화, 백연희, 백재선, 변중석, 서명아, 서미선, 서운정, 서주형, 서중석, 석순용, 손동각, 신복순, 신승애, 신한나, 신현훈, 심귀환, 심미경, 심한권, 안문필, 안민희, 안소진, 안희옥, 양현준, 어수진, 엄기양, 엄재균, 여준민, 오정자, 옥 샘, 윤길중, 윤두선, 윤명설, 윤석규, 윤정은, 윤 희, 이경희, 이광석, 이도건, 이미랑, 이미영, 이미자, 이석원, 이수용, 이순용, 이승범, 이승주, 이승현, 이알찬, 이은숙, 이은정, 이재령, 이재승, 이정우, 이재현, 이종실, 이주옥, 이지은, 이지혜, 이진희, 이철우, 이해창, 이현규, 이현숙, 이현진, 이형권, 이형록, 이홍규, 이홍호, 이희국, 임춘학, 임혜숙, 장기영, 장선정, 장성아, 장영숙, 장효정, 전경옥, 전권세, 전미라, 전민숙, 정상옥, 정연수, 정영란, 정영석, 정영화, 정용균, 정종권, 정진수, 정희덕, 조미정, 조성준, 조성진, 조승근, 조연희, 조은경, 조자영, 조하란, 조현숙,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천종민, 최경숙, 최경일, 최동호, 최미란, 최선희, 최승우, 최우영, 최윤선, 최 익, 최정민, 최정숙, 최정은, 최진철, 추경미, 하성우, 한남희, 한명숙, 한양재, 한지선, 한지훈, 한혜선, 한혜원, 허 건, 허정일, 허진태, 허 창, 홍갑출, 홍송대, 홍은전, 홍주영, 홍진표, 홍철기, 황성운, 황해진

| 지로후원 |

노국성, 박상수, 배영애

| 국민은행 모금함 |

남대문 지점



노들야학을 후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함 . 께 . 하 . 기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모집

장애 인구의 5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국민으로 누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http://www.nodl.or.kr>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 교사지원 문의 02-766-9101(사무실)
- 02-446-9101(야학)
- 016-9480-0722(교육부 차장)
- nodl@paran.com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후원인을 모집합니다!



●●● CMS 후원 가입 안내

CMS 후원은 후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새로운 후원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출금에 필요한 정보(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저희 야학(담당자)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766-9101 / 011-9194-7713(홍은진))

●●● 은행 자동이체 신청 안내

통장,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의 자동이체용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번호]

국민은행 835-21-0312-815
 기업은행 133-025369-02-019
 농협 029-12-200545
 신한은행 353-02-276437
 외환은행 170-19-30457-4
 우리은행 470-07-035448
 조흥은행 904-04-25520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 지로 번호 : 7648533

전구좌 예금주 : 박경석